

#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 한 새사람의 실지적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

성경: 엡 2:15, 4:22-24, 3:16-17상, 고전 6:17, 롬 12:2, 골 3:10-11

- I.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사람의 창조와 새사람의 새로워짐이 있다. 새사람의 창조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새사람의 새로워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II. 새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믿는 이들은 이 창조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 — 엡 2:15, 골 3:10.
- A. 새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창조하시는 일이 필요했으며, 그 일은 성취되었다 — 엡 2:15.
- B. 이 창조의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매일 새로워짐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 엡 4:22-24, 골 3:10.
- III.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져 우리의 옛 요소를 대치하고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 — 계 21:5상, 고후 5:17, 롬 12:2, 고후 4:16.
- A. 새로움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 롬 6:4, 7:6.
1.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우시며, 항상 새로운 그분의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하시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 — 롬 12:2, 골 3:10.
2.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의 속 부분들에 주입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영원히 새롭고, 결코 낡아질 수 없으며, 영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 계 21:5상.
- B. 새롭게 하시는 영은 새사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신다 — 딤후 3:5.
- C.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는 것은, 조금씩 날마다 우리의 걸사람이 소멸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고후 4:16.
- D.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새롭게 하는 역량에 의해 새로워진다 — 요 11:25, 고후 1:9, 4:14, 빌 3:10.
- IV.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긴요한 절인 에베소서 4장 23절에 따르면, 옛사람(옛 사회생활)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새로운 교회생활)을 입는 열쇠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 A. 거듭난 영은 새로워진 영이다. 이 새로워진 영이 강하게 되어(엡 3:16) 우리 혼의 각 부분(17상절)에 침투하고 혼의 각 부분을 정복하며 차지해야 한다.
- B.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딤후 4:22, 고전 6:17), 이 두 영은 함께 연합되어 생각의 영을 이룬다.

1. 우리의 생각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것을 깨달음으로써 새로워지고 있다.
  2.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되실 때, 이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된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연합된 영에 의해서이다.
- C.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것이다 — 롬 12:2.
1.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의 논리와 철학과 사상과 관념과 심리가 변혁된다.
  2. 새로워짐이란 진리의 영에 의해 그리고 성경 안의 계시들로 인해, 우주와 인류와 하나님 등과 관련된 우리의 종교와 논리와 철학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 십자가의 소멸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대치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 딤후 3:5, 롬 12:2, 엡 4:23, 롬 8:6, 빌 2:5, 고후 4:16.
- D.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자 할 때에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V. 새롭게 하시는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된 한 영으로 연합되시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되신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새사람의 지체인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 엡 4:22, 24.**

- A.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다 — 엡 4:22, 마 16:24.
- B. 새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 엡 2:15, 4:24.
- C.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한 것인 반면, 그 영은 새사람을 입기 위한 것이다.
1. 옛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 마 16:24.
  2.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이다 — 빌 1:19-21상.

**VI.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한 새사람을 완전히 존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 엡 4:22-24, 골 3:10-11.**

- A.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적 행동이나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새사람의 존재를 위해 새로워져야 한다.
- B.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초점은 한 새사람이다 — 엡 4:23-24.
- C. 우리의 국민적이고 민족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일생에 걸쳐 세워진 것이지만, 한 새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 골 3:10-11.
1. 우리의 천연적이고 국가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교육받고 세워진 것이다. 이것은 새사람이 존재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
  2. 한 새사람이 완전히 존재하려면, 우리의 국적이거나 문화에 따라 세워진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 — 골 3:10-11.
- D. 한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 롬 12:2, 엡 4:23-24, 골 3:10-11.
1.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지로 그리고 매일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은 새사람을 얻으실 길이 없다.

2. 한 새사람은 우리가 교정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아서 실현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침투하심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3.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새사람의 실행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 롬 12:2.
4. 매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한 영을 마심으로 우리의 실지적인 일상생활의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 엡 4:22-32.
5.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 그분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신다 — 고전 12:13.
  - a.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 그분께서 적시시는 우리의 혼의 첫째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다.
  - b. 그 영을 마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고, 이러한 새롭게 됨이 우리 모두를 한 새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 엡 4:23-24.
6.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한 새사람이 실지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진실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 골 3:10-11.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새사람을 입음

에베소서 2장 15절은 새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4장 22절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에베소서에는 새사람이 단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원칙으로 옛사람도 단체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가르침받고 교정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지시받음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23절)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단지 옛사람을 벗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24절)도 입는다.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새사람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된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사람을 입는 방법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이다(살전 5:23). 혼에는 생각(시 13:2, 139:14, 애 3:20)과 감정(삼상 18:1, 삼하 5:8, 시 86:4)과 의지(욥 7:15, 6:7, 대상 22:19)가 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로마서 8장 16절은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거듭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의 영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확증한다. 신성한 영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고, 이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고전 6:17)이다. 이것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열어 드릴수록, 연합된 영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더욱더 확산되어 생각의 영이 된다. 그러한 영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새롭게 된다.

###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 그 영을 마심으로써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됨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라고 말한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만, 영(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엡 3:19)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엡 1:23). 주님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먼저는 생각 안

으로, 그다음에는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된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연합된 생각의 영 안에서이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 드리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우리가 그 영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적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시키신다.

### 한 새사람을 위해 생각이 새롭게 됨

어린 믿는 이였을 때, 나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고 소유하시며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자백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행실도 바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초점은 한 새사람을 위하는 데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노예나 자유인에게 아무런 여지가 없다. 새롭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행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됨의 더 큰 방면은 우리의 민족적인 규례들을 끝내고 타고난 사람도 끝내는 것이다.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타고난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나 여지도 없다.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다. 새사람은 중국인, 일본인,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인, 미국인이 아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새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새사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을 수 없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있을 수 없다. 새사람 안에는 백인이나 흑인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한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새로워져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사람의 창조와 새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다. 새사람의 창조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만, 새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은 새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사람이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많은 나라에 가 보았고, 많은 특이한 규례들과 독특한 생활 방식들을 보았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일본의 규례들은 미국의 규례들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내가 방문한 사람들의 독특한 규례에 자신을 맞추어야 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규례들은 대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한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할 사람을 필요로 하셨지만, 사람은 타락하여 나누어지고 흩어졌다. 서로 나누어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쓸모가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라. 온 세상이 서로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다. 국제 연합은 거의 매 회기 때마다 다툼과 싸움이 있다. 세계의 실상은 이 땅의 나라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계층마다 분열이 있다. 오늘날 이 땅 곳곳에 분열이 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옷 입는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더 나아가 분열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이다.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23절은 새롭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두 절 모두 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12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몸의 생활 안에 있는 문제들은 서로 다른 규례들과 관련된다.

바울은 타고난 사람들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새사람 안에는 그들을 위한 여지가 없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포함시켰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구한다(고전 1:22). 할례자들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들은 유대 종교를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야만인들은 미개인들이며, 스구디아인들은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다. 노예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린 사람이며, 자유인은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국적과 언어와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계속 나누어져 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장했다. 이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위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종교적인 문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방식 때문에 나누어졌다. 종교적인 의견들은 항상 몸의 지체들을 나눈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들은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 영으로 채워지고 흠뻑 적셔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영계서 우리의 사고방식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까지 침투하셔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매우 조용하고 엄숙해야 한다.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도 이런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 왔던 모든 능력의 일들을 두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서 주님께 그들을 꾸짖으시라고 말했다(39절).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40절)라고 대답하셨다. 이 특별한 절에서 제자들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뻐하며 경배하였다.

어느 날 워치만 니 형제님과 나는 오순절과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 사람들은 뛰고 구르고 웃고 울고 외치고 있었다. 그 모임은 너무나 소란스러웠다. 니 형제님은 그 모임에 대하여 다만 이렇게 말했다. “신약에는 집회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워치만 니 형제님은 그런 거친 모임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에서 나타나는 죽어 있는 상태는 반대했다.

우리는 반드시 새사람 안에는 종교적인 규례들을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1960년대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위해 모이기 시작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내게 우리의 집회들에는 은사들이 없다고 불평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집회들에는 은사들이 가득하다고 말해 주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한다(8절).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스러운 한 형제가 내게 와서는, 우리의 집회들을 귀히 여기지만 유일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매들이 집회에서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나의 인식은 높이 평가하지만, 내가 집회에서 자매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전에 참석했던 모임에서 자매들이 찬송을 불렀느냐고 물어보았다. 그가 자매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대답했을 때, 나는 그에게 그의 모임에서도 자매들이 조용히 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말해 주었다.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여자들은 집회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신언도 할 수 있다(고전 11:5). 그러나 여자들이 권위자로서 가르치면서 교리를 정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딤후 2:12).

이러한 예들은 종교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모임은 그 집회에서 피아노를 칠 것인지 아니면 오르간을 칠 것인지를 문제로 나누어졌다. 결국 한 그룹은 피아노 모임이 되었고, 다른 그룹은 오르간 모임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종교적이냐 비종교적이냐의 문제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나는 피아노 모임도 지지하지 않고 오르간 모임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새사람을 지지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적인 행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새사람을 위해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계서 그들의 생각 안으로 확산되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이며 개인적인 관념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그 영계서 자신들의 생각을 점유하시도록 해 드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당신께 열어 드리기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채워주소서. 저의 내적 존재 전체에 침투하시고, 흠뻑 적셔 주시며, 소유하소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영계서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길을 얻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영계서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실 때 규례들은 끝난다. 그 영계서 우리의 생각을 소유하시고 흠뻑 적시실 때, 우리는 흑인이나 백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등을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가 시끄럽든 조용하든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한 새사람만을 주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주권으로 현대 과학과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지구는 좁아졌다.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많은 문화들과 민족들을 함께 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분열이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인 장로교회와 한국인 장로교회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국교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새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현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종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누어져서 자신들끼리 있기를 좋아한다. 종교적인 규례들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어져서 자신들끼리 따로 있는 것이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인데, 그것은 이 시대가 바로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 분열의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다. 우리가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이탈리아인이든 포르투갈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

한 새사람이 실지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정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는 한 새사람이 실현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계서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침투하실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고, 그분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볼 것이며, 그분께서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처럼 고려할 것이다. 바로 그때 한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더 이상 민족적인 차이도,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도, 종교적인 차이도 없을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에 대한 최선의 이상이라고 믿는다. 주님은 한 새사람을 얻으시려고 계속 나아가고 계신다.

### 주님의 움직임의 결과로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게 됨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분께서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성취된다.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건축된 교회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분열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은 한 새사람을 얻으실 것이다. 이 현시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목적은 한 새사람을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연합된 영으로 흠뻑 적셔지고, 침투되며, 소유되고, 점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관념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어떤 규례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726-734쪽)*